

# '맛의 도시' 목포시, 미디어 홍보 인기

### 지난 7월 '신상출시 편스토랑' 소개

### 김 활용 신메뉴 인기...매출 상승 효과

맛의 도시 목포가 지난 7월 '신상출시 편스토랑'을 통해 소개된 이후 목포의 김을 재료로 한 음식이 출시되면서 목포 김 매출 현재까지 2억원이 넘는 성과를 내고 있다.

'신상출시 편스토랑'은 연예계 소문난 소위 '맛잘알(맛을 잘 아는)' 스타들이 신메뉴를 개발해 평가단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메뉴가 실제로 전국 CU편의점에서 출시되는 신개념 편의점 신상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다.

지난 7월 방송에서는 목포 9미(味) 등 목포 음식을 맛있게 표현하고 관광평소를 반영하며 목포 맛과 멋을 널리 알렸다.

뿐만 아니라 목포 김을 활용한 이경규의 김자반 철판 볶음밥이 편의점에 출시되어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어 목포 김 매출 현재까지 2억원이 넘는 성과를 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미디어를 통한 홍보 활동으로 관광객 유치뿐만 아니라 특산물 판매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콘텐츠를 통해 목포를 알리며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목포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미디어마케팅팀을 신설하고 각종 방



송프로그램, 영화,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도시브랜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펼쳐 한국관광공사 2019 여행 트렌드 조사 결과 방송통신사 여행

지 키워드 언급량에서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고 순위에 오른 성과를 낸 바 있다.

목포=박정수 기자

## 무안군, '낙지특화거리' 설명회

### 내일 도시재생지원센터

무안군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낙지특화거리 조성 주민설명회를 오는 23일 오후 3시에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낙지특화거리 조성공사는 지난 6월과 7월 두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에서 거리조성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계획안이 마련되었으며 이번 설명회에서는 일방통행, 한전지중화, 주차장 조성 등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 등을 수렴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설명회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주길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하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 하반기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무안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올해부터 사업대상지 토지보상과 실시설계를 본격 추진하여 쇠퇴한 원도심 활성화와 도시경쟁력 회복을 목표로 2023년까지 총 4년간 추진된다.

무안=이기성 기자

## 신안군, '찾아가는 쉼터' 운영

### 치매환자 대상 2인 1조로 8회 걸쳐 교육 실시



신안군은 치매환자의 인지기능 저하 방지 및 건강관리를 위해 21일부터 찾아가는 쉼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고 밝혔다.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와 암태면 건강증진센터로 방문한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운영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사회 감염 방지를 위해 가가호호 찾아가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관내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2인1조로 8회에 걸쳐 인지기능훈련, 워크북, 미술 프로그램 등 치매환자의 기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한다.

기동취재본부



## 함평군,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

함평군 월야면 복지기동대(정정오 대장)는 지난 21일 주거환경이 열악한 독거노인세대 3개 가구를 찾아 집안 내·외부를 청소하고 도배, LED전 등 설치, 싱크대 교체 등의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사회단체로 구성된 월야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불편해소를 위해 조직된 민·관 협력 봉사대로, 주로 복지위기가구 발굴, 생활불편개선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함평=김광훈 기자

## 영암군의회, 관광산업발전연구회 영산호 뱃길 탐사

### 영산호 수변·육로 탐사

영암군의회 관광산업발전연구회(대표 조정기의원)는 군의원과 관계 공무원, 용역시행사 등 15명의 탐사대를 구성하여 영산호 뱃길 탐사에 나섰다.

이번 뱃길 탐사는 영산호 나불도를 시작으로 대불수로, 학산 망월천과 서호·군사·시종면 남해포까지 영산호 수변길 실태조사를 위한 현장점검을 하였다.

연구회에서는 영산호 수변길을 활용하여 테마별 자전거도로 노선 선정, 시설배치, 경관계획 등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재원확보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나간다는 목표로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영산호와 연계하여 독천낙지거리까지 방문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이템을 발

굴하기로 하였다.

한편, 지난, 3일 착수보고회를 통해 연구용역에 대한 세부적인 과업의 범위와 수행 내용,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으며, 앞으로 자료수집과 타 지자체 비교연구 등 중간·최종보고회를 거쳐 영암군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 군의원으로 구성된 영암군 관광산업발전연구회는 조정기 의원을 대표로 고천수의원, 노영미

의원, 유나중의원을 회원으로 영산강 수변길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조정기 대표 의원은 '영산호는 삼호 나불도를 시작으로 학산·서호·군사·시종에 이르는 아름다운 수변길로,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갖고있어, 앞으로 다양한 자료 수집과 비교 견학 등을 통해 관광상품을 개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조태호 기자

## 영광군, 추석 명절 과대포장 단속

### 오는 30일까지 집중 점검...위반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영광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관내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제품에 대하여 오는 30일까지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 완구 등 선물세트류 등이며 포장 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 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 및 분리배출 표시가 적절하게 표시되지 않은 제품이 해당된다.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경미한 사항은 시정 조치할 예정이며 포장방법 기

준에 부적합한 제품은 포장검사 명령을 시행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검사결과 포장 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1회용품 사용의 증가로 폐기물의 처리가 어려워지고 자원의 낭비가 무분별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해 자원낭비 및 환경오염을 예방해달라"고 당부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 무안군, 청소·주거환경 개선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15명 봉사

무안군 삼향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오선희·주은태)는 지난 19일 주거환경이 열악한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청소와 주거환경 개선 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박모 어르신은 허리 질환을 앓고 있고 배우자의 장기 입원으로 인해 집안 내부는 곰팡이와 온갖 생활쓰레기가 쌓여있어 청소가 절실한 상태였다.

이를 안타깝게 생각한 삼향읍 협의체 위원 15명은 생활 속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도배와 장판 교



체, 집 안팎 대청소, 소독 등을 실시하였으며 이불, 쌀 등 생활필품과 보행보조기도 전달하였다.

무안=이기성 기자

**코로나19 극복**

**대수맑은 감자는**  
**공동브랜드**

함께해요!

대수맑은 생태도시 담양의 청정자연에서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수확한 건강한 우리 농산물과 함께 코로나19의 빠른 극복을 기원합니다.